

노동자, 또다시 고공으로... “최고경영자 결단 촉구”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 10일 오전 50m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이 불성실한 사측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백 지부장은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이 9월 10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턴오버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조와 함께 7시간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25년 임금협상을 투쟁심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결심으로 크레인으로 올랐다”며 “사측의 태만과 위선적인 교섭 태도에 교섭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2025년 임금 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음에도, 사측의 뻔대기 교섭, 모르쇠 교섭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며 “사측생의 각오로 크레인에 올라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은 한미 정부의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다. 백호선 지부장은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백호선 지부장이 있는 크레인 아래서 파업 투쟁을 수행 중인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을 현대중공업 사측 경비대가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턴오버 크레인 앞으로 집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울 것 금속노조·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공동 성명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하고 구금한 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힌다.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공격에 맞서 함께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ICE 단속 영상에는 노동자들의 손, 발, 허리에 쇠사슬이 묶인 장면이 담겼다. 만델라 규칙(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 기준 규칙) 제47조와 제48조는 인간을 쇠사슬로 제약하는 등 “본질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협의 정도에 따라 피구금자의 움직임 제한이 필수적일 경우 “최소한의 제약 방법”만 허용한다. 이번 단속은 국제 규범을 어긴 행위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다.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미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국적, 인종, 고용형태, 소속 법인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공급망 속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조지아 현대메타플랜트단지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노동자가 예견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상황이다. 자본은 감지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 475명을 강제로 체포, 구금한 트럼프 정부는 또 어떠한가. 미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였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현장의 착취 구조 개선, 안전 환경 조성, 현장 지원 등이다.

구금자 475명 중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은 11일 귀국길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노동자는 여전히 구금 상태다. 금속노조와 전미차노조는 구금된 노동자 전체 석방을 요구한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는 역할을 방기한 채 ‘노동자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국제 연대가 절실한 때다. 이에 금속노조와 전미차노조가 앞장서 세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전미자동차노동조합